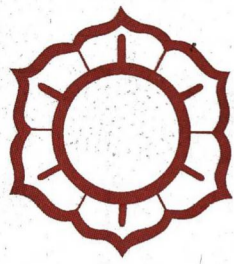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홀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4월 1일
목요일
제54호

이 달의 종조법설

나무는 비와 바람으로서 성장하나 비와 바람이
비록 싫다 하겠으나 그로써 자라는 것이며 사람
은 고난하여 성공하나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을 겪는 중에 인격이 완성하느
니라.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극락세계 왕생성불 하소서

총지종 종령 수성 대종사 입적



전국 스승님 및 교도, 사부대중들이 3월 29일 입적한 종령 수성 대종사의 고결식상에서 극락세계에 왕생성불하시기를 발원하고 있다.

총지종 종령 수성 대종사가 3월 29일 오후 3시 45분경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입적하여 3월 31일 오전 8시 30분 경북대병원 발인식장에서 교계관계자 및 내외 귀빈, 전국 스승님과 교도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결식을 봉행하였다.

고결식은 법체운구로 시작하여 대비로자나불전호법, 헌화 및 훈향정공, 참회기, 오대사원가, 무상계 독송, 유가삼밀, 행장소개, 장의위원장인 우승 통리원장의 조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고결식이 끝난 후 법체는 대구회장장으로 옮겨져 다비식의 순으로 봉행되었다.

우승 장의위원장은 조사에서 "우리와 함께 종생제도를 위해 영원히 생존하십시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적하시어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대종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철저한 수행 정진, 종단발전과 종생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용맹진전한 모습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입멸하시어 극락왕생하시길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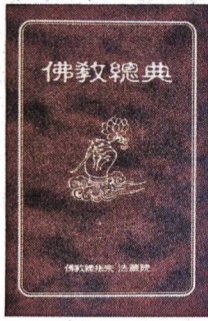
한편 수성 대종사는 1930년 경북 영일에서 출생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어 수행을 하시다가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대구에 있는 개천사, 제석사, 단음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여러 사원을 개설설사하고, 총지종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대구·경북 교구장, 중앙총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

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10월 총지종 제8대 종령으로 추대되어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총지종의 종풍을 진작시켰다.

생전에 수성 대종사는 총지종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종단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며, 원정 대성사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이치와 인과법을 모든 승적자 및 교도들이 깨달아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다.

새롭게 탄생한 『불교총전』

내용수정 및 편집형태 대폭적으로 변화



총지종의 기본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불교총전』이 새롭게 태어났다.

총지종은 기존에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총전』의 내용을 원본과 비교 검증하여 현대적 문법에 맞게 수정했으며 글자의 크기도 확대, 기존의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편집 형태를 대폭적으로 개편, 교도들이 읽기 쉽게 변화시켜 출판함으로써 경전으로서 가치를 더욱 고취시켰다.

『불교총전』은 창종 당시 중생교화를 위하여 종조 원정대성사님께서 직접 편찬하신 설법교전으로 밀교와 현교의 각

경전 중에서 교리와 수도 및 세속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항목별로 편찬한 총지종 교전으로서 목차와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내용을 쉽게 찾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스승들에게는 교화에 필요한 교리서로, 교도들에게는 수행의 지침서로, 불교 초학자들에게는 입문의 길잡이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불교총전』은 총지종의 기본교전으로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불자들을 위하여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된다.

한편 법정원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불교총전』을 경전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경전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출판불사를 실시한 후 교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밀교장경』, 『종조법설집』도 개편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총지종 제63회 춘계 강공회

종단운영 방향과 정책개발



총지종 전 스승님들이 강공회에 참석하여 종단의 현황을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교세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총지종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스승님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춘계강공회를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하여 종단의 운영방향과 현황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개발

및 교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더불어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강공회는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최

하여 종단의 현황문제를 조망하여 개선하고, 종무행정의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안 문제를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우승 통리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종단의 운영에 있어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항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승 통리원장은 춘계강공회 개최를 앞두고 "종단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단의 운영과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화합을 위해 집착과 분별심을 버리고 원용의 자세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종단의 운영은 통리원과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승단과 교도들이 상호 협력하는 적극적인 동참과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며, 현 집행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며 진의할 사항이 있으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언하는 중생의 약업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선업을 지어 내생에서 업장소멸을 위해 용맹진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총지종 집행부 일부 인사단행

재무부장에 시정, 사무국장에 법경 정사 임명



재무부장
시정 정사

사무국장
법경 정사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3월 12일 현 법천사(성남시 하대원동) 주교인 시정(숙명 : 이재호)정사를 재무부장에,

법정원 연구원인 법경(숙명 : 김홍배)정사를 유지재단 사무국장에 임명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상반기 49일불공기 간중이라 총무부장 및 다른 각부 부장의 선임은 상반기 49일불공 회향일인 4월 8일이후에 단행할 예정이며, 이번 선임될 각 부 부장은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인물로 총지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과 소신있는 역량으로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총지종 정사 정복 교체

황토색 개량한복으로 정체성 확립

총지종은 1년여의 연구와 검토의 결실로 정사들의 정복을 양복에서 황토색 개량한복으로 교체하였다.

정복은 공식불공시 자색 법의 속에 입고, 일상생활시 수의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정사들 중 일부는 양복을, 일부는 검은 색 개량한복을 수의하여 정복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황토색 계열의 개량한

복으로 교체하게 되었다. 이 정복은 이번 춘계 강공회에 승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사항과 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후 공식적으로 수의할 예정이다.

한편 총지종의 정사들은 정복의 통일성을 기함으로 인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교의 활성화를 모색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죽비소리

대저 모든 부처님이 적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오랜 세월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때문이요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맴도는 것은 한없는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때문일세

막지 않는 저 천당에 가는 사람 적은 것은 삼독심과 번뇌를 나의 집 계물로 삼기 때문이요 껍데기 없는 저 약도에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네 마리 뱀과 오곡으로 망명의 보물을 삼기 때문일세

『발심수행장』중에서

제63회 춘계강공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과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홍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3년 4월 20일(화)~총기 33년 4월 23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⑫

변지원(遍知院)의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

지난 호까지 중대팔엽원의 사여래(四如來), 사보살(四菩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변지원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중대팔엽원은 태장계만다라의 중심으로 깨달음을 나타낸다. 깨달음과 그 인위(因位)의 제불보살(諸佛菩薩)들이 중앙의 대일여래, 동방의 보광여래, 남방의 개부화왕여래, 서방의 무량수여래, 북방의 천괴로음여래, 그리고 이들 사여래(四如來) 사이에 있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이다.

이 중대팔엽원의 위쪽이 오늘부터 살펴 보고자 하는 변지원(遍知院)이다.

이 변지원은 중앙에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 좌우에 각각 불안불모(佛眼佛母),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眞實菩薩), 그 사이에 우루빈라가엽(優樓頻羅迦葉), 가이카야(伽耶迦葉)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지혜(智慧)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변지원은 중대팔엽원을 들

었다. 바깥의 불꽃화염은 세경으로 되어 있다. 그 바깥에는 둥근 원으로 둘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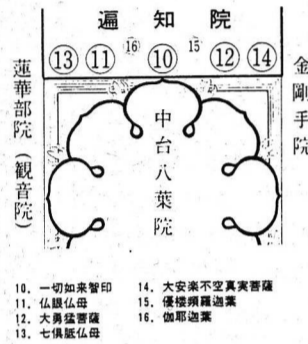
삼각형 주위에 불이 타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불은 어떤 것을 태우고 부정(不淨)한 것을 없애는 것으로, 중생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태워 버리고 수행자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여래의 지혜'로 상징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항복(降伏), 제장(除障)에 비유된다.

바탕의 순백색(純白色)은 대자비(大慈愍)를 나타낸다. 따라서 순백색의 삼각형 안쪽 부분을 붉게 채색하고 있다. 삼각형 안쪽과 꼭대기에는 '만' 자가 새겨져 있다.

'만' 자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길상(吉祥)으로 여겨졌다. 꼭대기의 '만' 자는 석존이 사마(四魔)를 항복시키고 정각(正覺)을 성취한 것을 나타낸다. 안쪽의 '만' 자는 오고저(五杵)로서 본유(本有)의 보리심(菩提心)을 가리킨다. 삼각형이 세 겹으로 그려진 것은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지혜를 나타낸다.

세경으로 된 화염(火焰)은 삼독(三毒)을 태워 제거함을 나타낸다. 삼독 또한 본래는 정정하며 보리와의 불이(不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레의 두개의 원은 지혜로부터 생기는 자(慈)와 비(悲)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빛과 불로써 표현되므로 일체여래지인의 밀호(密號)



변지원은 대일여래가 갖고 있는 지혜의 덕 중생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태워 버림

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쪽의 원(院)으로 동방상단에 위치한다. 변지원은 대일여래가 갖고 있는 지혜의 덕을 나타낸다. 변지(遍知)란 '널리 아는 지혜', 즉 '일체지(一切智)'를 의미한다.

지혜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부처를 탄생케 하기에, 모든 부처의 어머니에 비유된다. 그래서 이 변지원을 불모원(佛母院)이라고도 한다. 가장 가운데 것이 '일체여래지인'이다. 대부분의 존상들이 신상(身像)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비해 일체여래지인은 특이하게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체여래지인은 그림과 같이 삼각형 안에는 '만' 자가 새겨져 있고, 순백색의 삼각형 바깥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연꽃 위에 이 삼각형이 올려져 있다. 삼각형은 세경으로 그려져

를 '발생금강(發生金剛)'이라 한다. 삼매야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삼각지인(三角智印)이다. 존형(尊形)은 앞의 설명을 재언하면 백색광(白色光)으로서 둥근 원 안에 순백(純白)의 삼각지인(三角智印)이 있고 보련화(寶蓮華) 위에 놓여 있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으로 표현된다.

이 일체여래지인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사라바 보다 보디 사트바 기리다야 니야베니사니 나막 사라베비다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제불보살의 심중(心中)에 스며 들어가는 분이여! 일체지자에게 귀의합니다.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아제 아제 바라아제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는...

불교계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몇 년 만에 모처럼 모여 강원도로 워크샵을 가는 날이었다. 오후3시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나는 오전 내내 정신없이 그 날의 일을 서둘러 처리하기에 바빴다. 사무실 식구들과 늦은 점심을 먹으며, 식당 분위기가 어찌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TV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보였다. 밥을 먹는 건지 아닌지, 자꾸 자꾸 한숨이 나왔다. 동료 중 누군가가 '워크샵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을 했지만, 머릿속은 심한 충격으로 텅 빈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다.

워크샵의 컨셉은 '2010 희망찾기'였다. 지금부터 노력하여 2010년에는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 일 것이다. 근데, 이대로라면 2010년의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활동가들의 오랜만의 나들이는 가는 차 속에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를 넣고 있는 것 같아 그리 즐겁지만은 못하였다.

집으로 귀가한 날 저녁, 나는 인터넷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모니터 하였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야 대통령 탄핵이겠지만, 자꾸만 떨어지는 지지율하락 속에서 4.15총선을 연기시키

키고 고건총리로 유아무야 흘러가다가 결국은 내각재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국을 몰아가는 것일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정말 분노스러웠다. '그나마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인데.....'

사실, 나는 지난 대선 때 정몽준의 지지철회와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었다. 그렇다고 노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게다가, 취임이후 그는 나의 정치적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미움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영위하기 위해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국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좌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럴수록 올바른 정당선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동시에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혼란한 정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새삼 느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동료들과도 잠시 토론을 하였는데, '서로의 정치적 입장은 약간씩 달랐지만 국민적 합의제인 총선만큼은 절대 연

기시키기는 일 없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였다. 퇴근 후 나는 촛불시위행사에 참석하였다. 혼자 간 터라, 노래도 잘 따라 못하고 조금은 수동적이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다음날도 나는 시위에 참석하였다. 평일이라 사람들이 적을까봐 걱정되어서 피곤한 몸을 달래며 간 것이다. 귀가시간이 늦어지자, 남편은 '이 나라 자네 혼자 지키는가?' 하고 웃으며 농을 쳤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 닿는 데로 가자이 어찌하랴' 싶어, 더 열심히 갔다. 큰 힘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내 양심에 따른 나의 민주주의 실현방식인 것이다.

지난 토요일 저녁, 시청 앞의 찬란한 20만개의 불꽃들을 박차게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도 선거 때만 되면 늘 불신했던 내나라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최대의 사회적 이슈인 탄핵상황과 관련하여, 불교계에서 일하는 한 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분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대두될 때 그것을 "불교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하시며, '지금의 탄핵 상황을 불교적으로 본 한다면, 중도, 연기, 무아의

모든 일은 중도, 연기, 무아의 관점에서 보아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에 근거한 바른 행동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도는 올바른 길과 그른 길을 아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들을 모든 관계성의 결과로 또한 다른 것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연가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미 나와 내가 없는 심리적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무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짧은 앞글이지만, '올바른 길과 그른 길을 아는 것' '독재의 시퍼런 칼날 속에서도 몇 십년 동안 씌 없이 전진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관계성' 나는 없고 선한지만이 있는 촛불시위'를 나는 불교적 관점과 연결시켜보았다. 부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진리파지의 영역에서 제일먼저 바른 이해(정견)를 강조하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일상적인 세속의 삶을 살아가다 역사적 소용돌이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이해에 근거한 바른 행동(정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생각이 될까? 아닐 것이다. 사실, 세속(역사)에서의 정의는 늘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선택의 곤란함을 피할 수는 없으니, 오직 바른 이해만이 우리를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김선미/인도리만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이달의 명상

계행은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계행을 지키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지혜는 눈(目)과 같고 행은 발(足)과 같은 것이어서 눈과 발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지혜있는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은 가야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밝

더라도 가야할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해도 행함이 없으면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바와 다를 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발이 아무리 튼튼하여 어디든지 열심히 잘 갈 수 있다 하여도 눈이 어두우면 가야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원효스님의 말씀처럼 동쪽으로 가는 줄 알고 가지만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찾아 간다는 것이 구렁텅이로 걸어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행은 눈과 발의 관계와 같고 수

래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여 행에 소홀해서는 안되고, 지혜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편집자 주>

지혜는 눈, 행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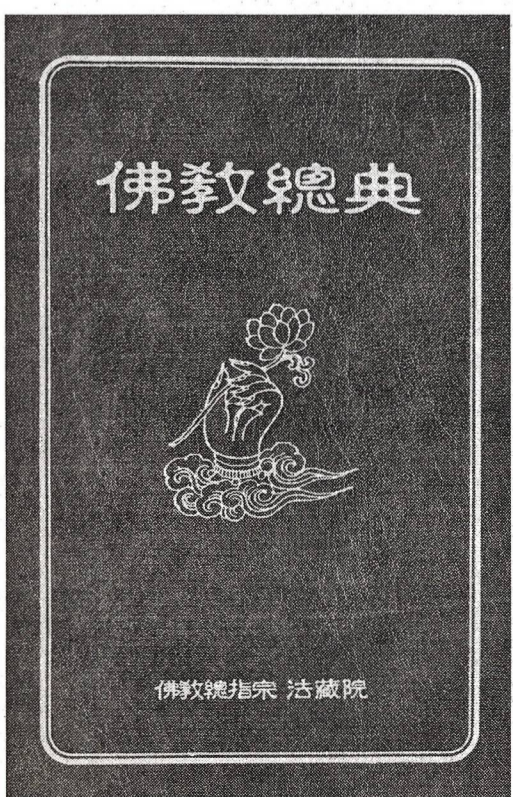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실천 공부 ⑨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국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으셨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기독교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모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슬증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든 것이요 심중계(十重戒)로부터 사십팔 이백오십 삼백사십팔 오백계를 다 중생이 소임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칠중은 각각 자기에게 합당한 계율을 직무적으로 행해서 중생에게 반역할 법계의 소임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고 중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고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행하게 될 만한 법을 근거에 병해서 살할 뿐 아니라. 우리 보살회에서 이 법이 서게되면 실천화도(實踐化導)하는 스승은 지위가 높아지고 실천화도하지 못하는 스승은 지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스승의 실천화도가 많은 심인당(心印堂)은 신교도(信敎徒)의 가정에 뿌려져 가는 행복이 많고 실천화도가 적은 심인당은 신교도의 가정에서 빠져 가는 행복이 적으니라. 법계 진각님께서 아무리 중생을 제도할 본(本)을 가지지 계시더라도 중생으로부터 시작(始覺)하여 진승(眞俗)을 통하고 법을 세우려는 자가 없으면 진각님도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화도(化導)하는 법을 세우지 못할 것이요, 또 법이 없으면 보살회가 서지 못하고 보살회 없으면 실천하는 스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실천화도하는 스승이 없으면 신교도가 누구를 인연해서 모여들며 무엇으로 주해서 깨닫게 되리요. 그러므로 스승의 자격과 실천법을 세우지 않으면 보살회가 서지 못하고, 실천법과 스승 자격은 세워졌는데 화도(化)를 주(主)로 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교화(敎化)가 잘 되지 어려운 까닭이다.

신교도가 악업을 참회하고 이웃 사회를 정화하는 데 까지 스승이 화도할 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신교도 가정에 원만한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고 스승 된 자신이 알고 항상 참회하여야 한다.

다 종교법과 계율을 실행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법이요 각자 종교에 의거하고 있는 스승을 다 실천케 한다는 것은 가능한 법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교화하는 법계의 조직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정보제공: 총지연구실)

는 법계의 교화방편이 되느니라.

성현을 숭배하고 성현의 말씀을 찬성하여 교가 왕성하게 되면 찬성하는 사람도 왕성하게 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감화가 되느니라.

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면 그 교가 쇠할 것이요 그 교가 왕성하게 된다면 비방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는 타락한 데 돌아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교와 스승을 찬성하는 데 행복하고 교와 스승을 비방하는 데 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와 스승을 비방하는 사람만 복이 없느니라. 더욱 현세를 행복케 하는 교를 비방하고 스승을 질투하게 되면 현세부터 곧 그 과보를 받게 되며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어느 곳에서라도 항상 지혜로써 진각님을 믿고 또 일상생활에 법계 진각님을 떠나지 않아서 화와 복을 깨닫고 진각종지가 확고하게 된 연후에 심인불교의 스승이라 할 것이니라. 현대 종교기관에서는 여성과 재물이 주로 가까워져 있는 연고이기에, 하물며 권력의 상을 나타내지도 않은 심인당에서 진각님을 해안(憚眼)으로 보지 못하고 심인(心印)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는 재색(財色)에 범하기 쉬운 중생이 되어 있는 까닭이다. 법계가 될 종지가 나타나

마련해 두신 까닭이다. 그러므로 화(禍)와 복(福)을 내가 지어 살고 가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우리 보살회의 스승으로 천거하게 되느니라.

종교의 지도자되는 자는 법계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공도(公道)를 실천화도(實踐化導)하는 데 국가 공직의 지도자도 따라서 자연 공직을 세우고 법률을 실천수범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공직의 지도자가 공직을 세우고 법률을 실천수범하는 데 어려서 국민이 못사자 여간 우를 범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 공무(公務)가 균등하고 사(私)에 기울 어지지 않게 되므로 질서없는 데 까지 이르지 않게 되느니라. 법계의 진리가 이와 같으니 어찌 종교의 지도자 책임이 중하지 않겠느냐.

진리로 화도하는 스승이 되어서 부모가 본심으로 실천한 결과가 자손에게 미치고 같이(법계에 내준) 심인이 스승을 찬성하여 무언 중에 화도(化導)되는 고사하고 도리어 신교도가 스승의 허물로 나타난 불행은 보게 되면 조소하고 비방하는 재앙은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같은 이치를 알고서 어찌 화도자(化導者)가 될 스승과 해인행(海印行)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리요. 우리 교가 지니온 일을 돌아볼지라도 창설 당시에는 진리를 좋아하고 알기만 하여도 스승으로 채용한 까닭에 신교도의 동요 그 불신케 한 것은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사회의 비방을 받던 일이 가끔 있지 않았던가.

이제는 벌써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지도자는 해인행으로써 육행을 교화할 수 없으면 화도(化)스승이 될 자격이 없느니라.

<자료제공: 총지연구실>

실천화도하는 스승은 지위가 높아지고 못하는 스승은 지위가 낮아짐
 스승되는 자는 법계 안에서 실천화도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야함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삼천만을 다 진각님이 설하신 수백 계율을 지니게 한다는 것은 안되는 법이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는 스승과 화도자(化導者)를 실천케 한다는 것은 되는 법인 까닭이며 전세계의 이십억을

사람으로서 실천케 하고 믿는 사람보다 화도자(化導者) 스승으로서 실천케 하고 화도하는 스승보다 법계 하나 진각님은 절대적 자비와 지혜와 선권(善權)을 가졌으므로 여만 중생을 교화하는 데 근본이 되어서 일은 적게하고 공은 배가 되

있는 것은 교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다. 교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物)에 대한 분별과 사(事)에 대한 선후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없이 아는 법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 교문에서 스승되지 못하게 법계 진각님께서

스승과 신교도

법계 진각님은 어느 때라도 중생제도를 위해서 항상 법계의 강령(綱領)을 세우고 계시므로 누구라도 진리를 성취하여 인법(印法)을 세워 오는 자면 법계 진각님은 전체를 위해주시 뿐 아니라 천기와 상징으로 하여금 백전만첩으로 거듭 둘러싸고 도우게 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스승의 도가 무너지고 없어진 이때에 우리 보살회에서 직분과 스승 자랑을 세워가는 인법을 세우고 실천하여 가는 것을 참으로 법계 진각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계율은 사부(四部)와 칠중(七衆)들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한방피부미용



미용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요즘처럼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보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개인의 기질과 능력 등을 결정해 버리는 시대에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짚어보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방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음식뿐 아니라 실제 매일 여성들이 접하게되는 화장품에도 한약재를 이용한 순수미용용품이 발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몸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거울이라고 본다. 즉 피부는

외부의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인체의 장부로 보내고 인체내의 탁한 기운과 장부의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유지하게 된다.

즉 피부가 나빠지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게되며 이러한 이치를 통해 단순히 피부의 문제만을 해결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장부의 기능을 함께 치료하게 된다.

우리인체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수분을 체액이라 표현한다. 피부의 문제는 대부분 체액이 깨끗하지 못해서 나타내게되는 한식생활과 서구화된 음식섭취, 스트레스 등이며 한의학에서는 체액을 맑게 하기 위해 인체의 어혈과 담을 등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피부를 치료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

외부의 날씨와 기온, 사계절의 변화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피부이다.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대기가 건조하고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피부의 손상과 건조가 심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약해지는 시기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한방팩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초팩: 30대 이후의 피부에 효과적. 보습과 미백효과가 뛰어나. 해초가루에 오이즙, 요구르트 등을 섞어 사용.
- *녹차팩: 기미, 주근깨피부에 효과적이며 피부에 윤기를 준다. 녹차물을 우려내어 약간 식힌 후 거즈에 묻혀 팩을 한다.
- *감초팩: 알레르기와 민감성피부에 효과적. 감초 다린물에 달걀흰자나 우유 등을 함께 깨어 팩을 한다.

여성美 한의원 ☎(02)545-0072

피부는 몸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거울
 인체의 어혈과 담을 등을 배출시키는 치료

진한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하기보다 평소 조금만 피부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진정한 건강미인

여성美 조선화 원장

이 원장 여성병(부인병)으로 공부하시니...
여성병 안의원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러명의 병환자...
안타깝게도 위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심 자궁서혈체거

생혈액분석기 자동발광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자기기 작문욕기

여성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병)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당),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저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여성美 한의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사역1번출구 도사대로

30M 20M 지하철도구 1분거리 일방통행 매생이바나빌

STARBUCKS 강남역

동경소리

복(福)이란

어는 장자의 집에 손님으로 간 바라문은 닭장에 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그 때의 복이 바로 닭벼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수탉을 제게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제자들이 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암 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복이 지팡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장자님, 몸이 좀 불편하니 지팡이를 빌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 복이란 스스로 짓는 것이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바라문의 탄식이었습니다.

맹란자/수필가

물건에 대한 대접

우전왕의 왕비는 5백벌의 가사를 아난존자에게 보시했습니다.
왕이 아난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 스님들께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입던 헌 옷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스님들의 헌 옷으로는 이불 덮개를 만들겠습니다.”
“헌 이불 덮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 이불 덮개는 베갯잇을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왕의 질문은 계속 되었지만 존자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헌 베갯잇으로는 방석을 만들고, 헌 방서는 발수

건으로, 헌 발수건으로는 걸레를 만들고, 헌 걸레는 잘게 썰어 진흙과 섞어 벽을 바르는데 쓰겠습니다.”
물건의 수명도 인간의 수명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수명을 늘려 스는 일은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대접 일 것입니다.

박경준/동국대학교수

안으로 깊어지는 것들

골짜기의 물은 몸 낮추어 아래로 흐르면서 강물과 하나 되어 바다로 흘러들고 안으로 더욱 깊어져 소리 없이 흐릅니다.

일새들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겨울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위해 낙엽을 발아래 묵혀 두고 안으로 단단한 속살을 채워갑니다.

멀고 험한 길을 달려 온 사람은 아픈 고난의 시간 위에 스스로 뿌리를 내려 안으로 겸허함이 깃든 나무 한그루 키워 갑니다.

문운정/수필가

뫼하러

한 고승이 생선 가게 앞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음... 저 생선 참 맛있겠다.”
옆을 따르던 어린 제자가 듣고 절 입구에 이르자.
“어는 못 참겠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스님이 해도 됩니까?”
그러자 고승은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뫼하러 그 생선을 여기까지 들고 왔느냐?
난 벌써 그 자리에서 버리고 왔다.”

맹란자/수필가

나도 한마디 부처님의 상생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최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온 나라는 혼란과 국민의 민생안정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당리당약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광경, ‘나는 나요, 너는 너’라는 분별심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여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처님께서 “모든 사물에는 불성이 있으며, 거리에 피어나는 풀 한포기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서로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중생들에게 상생의 정신을 지각시켜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역사자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화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신으로 정치에 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처님께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부자, 가난한 사람 기릴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안고 서로

의 아픔을 위로하고,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헤아리고 서로간에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살라.”고 하셨듯이 부처님의 상생정신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김철중〉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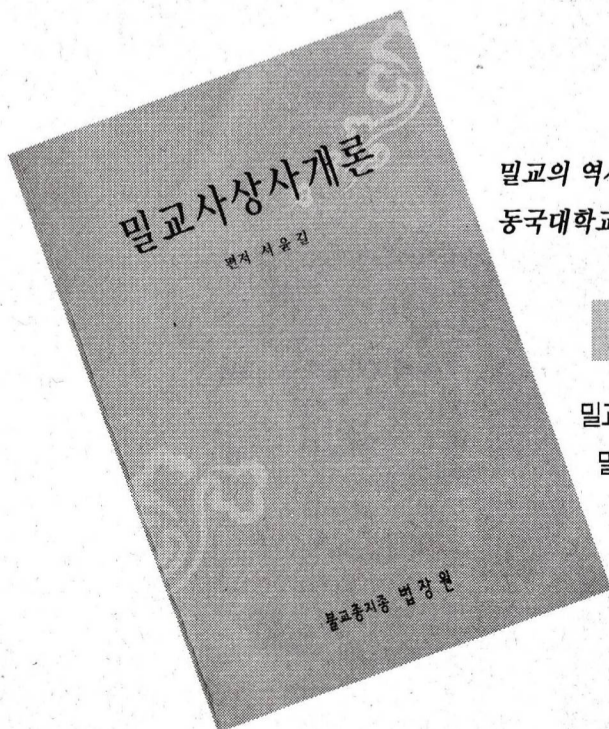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27화~

글.그림/정수일

이런.. 아까운 mp3는 왜 때려 부셔요.
나에게나 주지..
행... 할부도 아직 덜 끝났는데...
12인연이란 무명이 원인이 되어 그로부터 모든 인연 따라 노사에 까지 이르는 결과를 열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눠 설명한 것이며...
12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연이라는 두 글자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아.. 나는 누구인가?
그 무명 속에서 괴로워 하며 헤매는 혼이 있다.
행이란 무명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업...
아아.. 답답해!
생명현상의 원동력인 그 혼은 무명 즉,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다.
부모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명에서 헤매이던 "나"라는 존재는 무명을 벗어나 새 생명의 씨앗으로 어머니의 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 밝은 빛을 보고 싶다.
하하.. 그것 보세요. 어둠과 답답하죠? 아주 쉬운 예로 금방 그런 것이 무명이랍니다.
그리고 어둠을 벗어나고자 했던 각자님의 마음이 제 손을 치운 행을 한거구요.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각자님의 눈을 한번 가려볼게요.
헉!
아이고! 답답해. 밝은 빛이 보고 싶어.
하어튼 각자님은 먹는 것 밖에 모르는군요.
대성사님 먹고 하는 게 어때요? 마침 저기 닭집이 있군요.
"무명"과 "행"을 합쳐 과거세의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한답니다.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들었더니 갑자기 배가...
해헤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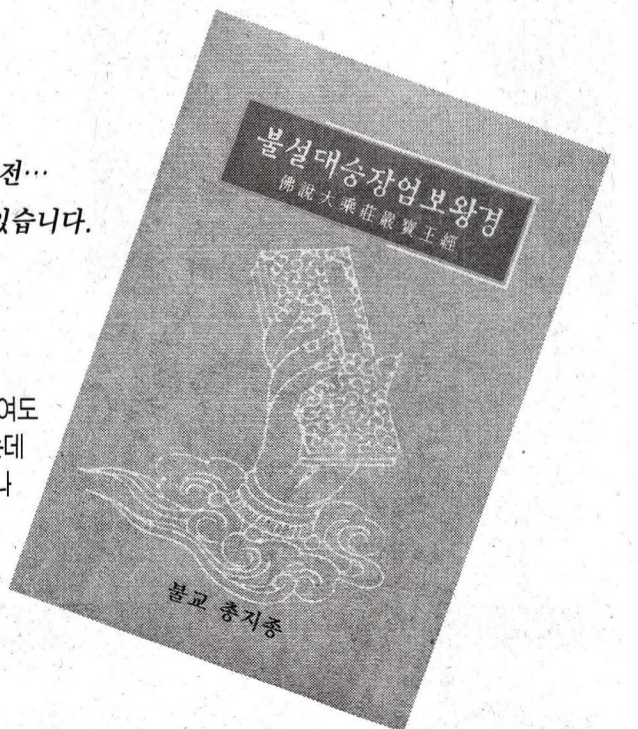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메춤)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배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